

■ 2026년도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예비예술인지원사업(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
- 회의일자 및 장소
 - (1차 분야별 서류심의) 2025년12월11일~19일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2차 분야 통합 인터뷰 심의) 2026년01월08일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2차)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경태, 김미정, 김세연, 박혜선, 안지형, 유연경, 임산

본 사업은 예술대학(원)의 예비예술인들이 현장과 연계된 실질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전문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학의 교육 인프라와 실제 예술 현장을 연결시켜 예비예술인의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사업심의는 우선 지원사업 전체를 전수 검토하는 사전 평가에 이어, 각 부문별(문학, 시각예술,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서류 심의가 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차 부문별 심의에서는 최종 선정 규모의 1.3배수 내외로 2차 심의 대상을 선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2차 통합 심의(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업의 취지와 예비예술인의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첫째, 주관기관 및 컨소시엄 단체의 수행 능력, 멘토진의 전문성, 협력 네트워크의 적절성(신청주체의 사업수행역량 : 30%)을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계획의 타당성과 완성도, 예산 편성의 합리성, 그리고 예비예술인 발굴 및 확대 노력(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70%)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예비예술인 모집 규모에 따른 정량 점수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소재 대학/단체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여 (정량평가 및 가점) 지역 예술인 발전을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2차 심의(인터뷰)는 통합심의를 원칙으로, 10분 내외의 인터뷰를 통해 신청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기대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첫째, 단순한 결과물 창출보다 실제 예비예술인이 현장과 연계되는 방법 및 그 후속방안의 구체성에 우선 주목하였습니다. 단순히 기존 예술계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서 향후 예술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까지 고려하였습니다. 둘째, 대학 및 협력단체가 보유한 인프라가 예비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예술 현장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지, 컨소시엄 전반의 역할분담, 자원공유, 책임소재 등이 명확한지, 그리고 멘토링 프로그램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후속 지원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하였습니다. 셋째, 예비예술인 모집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특히 예비예술인의 역할에 따른 적정 사례비 편성이 이루어졌는지를 통해 권익 보호 노력을 살폈습니다. 넷째, 각 예술 분야별 특징과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는 것의 타당성 및 실효성에 대해서도 살폈습니다.

부문과 장르를 불문하고 장르 간 경계를 넘나드는 실험적인 시도가 돋보였으며, 가

속화하는 기술 통치 시대에 기술과 예술의 관계 및 예술의 의미를 고민하는 진지한 탐구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방소멸과 위기가 체감되는 시대에 각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예술과 삶을 고민하고 계신 각 현장의 분투에도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 현장에서 수용자와의 연결을 고민하며 예술의 공공성을 확인하고 갱신해가는 계획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고민이 실제 예비예술인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활동에 어떻게 연결되는지의 구체성이 관건이었습니다. 특히 협력기관이 다수 참여할수록, 협력 구조의 구체적 작동 방식 및 예비예술인 관리체계(교과연계, 학점 인정, 멘토링 등)를 보다 명료하게 제시한 사업계획이 높은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심의위원회에서는 배정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심의 결과들을 토대로 최종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지원금은 사업의 유형, 성격,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하여 건별 탄력 적용가능한 기준에서 검토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우수한 사업들을 모두 선정하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선정된 대학과 단체는 예비예술인들의 성장과 발전에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선정 여부를 떠나, 예술 현장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주신 모든 신청대학-단체의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사업의 준비 과정이 예비예술인 지원 체계를 점검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심의위원 일동